

요소수 배출 연기로 대학원생 피해 입어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실험 연구동 대학원생들이 버스 차고지에서 요소수를 태우는 냄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원 연구실이 있는 실험연구동 B동은 버스 차고지 옆이다. 차고지 버스에서 배출되는 요소수 가스가 바로 옆 실험연구동으로 유입되며 대학원생들은 두통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험연구동 B동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이민우(전자정보융합공학 2023) 씨는 “연구동 바로 앞에서 요소수를 태워 뿌연 연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 버스회사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실험연구동 B동 내 다른 연구실 상황도 마찬가지다. 유찬식(정보전신소재공학 2023) 씨는 “유독 가스가 연구실 복도에 가득 차 복도를 나가거나 문을 열 때마다 두통과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슈밤퍼틸(전자정보융합공학 2021) 씨는 “본격적인 문제를 인식한 것은 작년년부터”라며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기가스저감장치(SCR)부착 의무화로 대중교통 차량의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주입한 요소수는 운행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작동으로 모두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정체와 정류장 수 증가로 정차가 잦아지며 속도를 내지 못해 요소수 잔여량이 발생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차고지를 운영하는 대원고속 이종호 영업소장은 “차량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아 운행 중에 속도에 따라 남은 요소수 양이 달라진다”며 “잔여량을 공회전하며 다 태우지 않으면 다음 운행 시 속도가 급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도 환경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5년 전부터 장치를 부착해 운행 중”이라며 “주거지역과 밀접한 차고지는 요소수 관련 민원으로 회사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소장은 “코로나 시기엔 통행량과 정차 횟수가 많지 않아 운행 중 요소수를 다 태우고 올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요소수가 남은 경우가 잦아져 차고지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차고지 공간이 한정되어 어디서 태우더라도 바람에 날려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며 “학교와 용인시청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노천극장 쪽 공터에서 태워달라고 기사님들께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도 대학원생의 불편 사항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총무팀 이조원 주무관은 “올해 초 요소수를 태우는 작업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후 버스회사 측에 일과 시간엔 작업을 지양해달라고 2회 정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다만 세 번째 요청에 버스회사 측에서 조심하겠다는 답변이 왔으며 아직은 민원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17대 김진상 총장은 임명식에서 임기 내 수행하려는 네 가지 주요 과제와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김륜희 기자)

김 총장 임명식, “웅장한 비상 위해”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제17대 김진상 총장의 총장 임명식이 지난 27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교무위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총동문회장 등 내외빈이 임명식에 참석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은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속, 함께하는 공명으로 경희대학교가 웅장하게 비상하게끔 초석을 다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임기 내 수행하려는 네 가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적이고 민첩하며 열정적인 거버넌스 구축, 학문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학과 간 교육

과 연합 수행, 다양한 재정 파이프라인 구축과 디지털 전환, 교내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 실현이 골자였다.

김 총장은 네 가지 과제의 대략적인 이행 방향을 언급하며 취임사를 이어 나갔다.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획과 구성원의 공명이 필요하다”며 “대학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창의적인 거버넌스와 인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과제를 위해 “기존 학문의 벽을 뛰어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환 시대의 교육 혁신을 위해 등록

금 위주의 재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연구와 공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미래에 쉽게 적응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과제에 관해선 “강한 리더십과 경영 혁신은 물론 구성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은 “김 총장이 이제까지 대학 조직 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한 경험으로 미래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학기

경희 꿈 도전장학

1인/ 팀당 100만원 ~ 400만원 지급

꿈도전장학II 신설

심사위원 최종 평가결과 상위 30%이내 학생 중 꿈도전장학II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대상으로 100만 원~400만 원 지원

문의사항: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

지원대상

선발방법

신청방법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도전분야: 창업/학술연구/자유주제/SDGs (경희정신 구현)
- 2024-1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면접평가(100)로 최종대상자 선발
※평가항목은 분야별 배점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인포21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서, 경희꿈도전장학 활동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신청기간: 2024.03.25.(월)~2024.04.14.(일)
※장학생 의무사항: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결과발표회 참석

미래 혁신 단 학생 지원 센터